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트럼프 정부의 철강 등 관세 부과 대응 방안 논의

-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 -
- 관세 조치 발효일(3.12일) 전까지 우리 이익 반영을 위한 대미 협의 지속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화)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로 美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그간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용한 對美 협력채널을 모두 활용하고 고위급 訪美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국과 협의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유지되어 온 철강 쿼터 폐지에 따른 대미 수출 경쟁력 분석 등 대응 전략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현지 공판, 싱크탱크 등을 통해 미국 내 관련 기업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과 협력 채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총괄>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배병관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이동휘 (hui1219@korea.kr)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7670)
		담당자	사무관 김상형 (sanghyeong@korea.kr) 사무관 홍가람 (ddallokx2@korea.kr)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	책임자	과 장 김동윤 (02-2100-7684)
		담당자	서기관 채유승 (yschae@mofa.go.kr)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sanghoon319@korea.kr)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정지선 (jiunjeong@korea.kr)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방진아 (044-200-2178)
		담당자	서기관 성인영 (inyoungs@korea.kr)

